

부처님오신날 특집

다종교사회 종교화합

“남의 종교 인정... 대화로 공존을”

동서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저하지 않고 '종교간의 갈등'을 꼽는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이기심과 배타심으로 무장된 종교집단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사회도 '종교의 박람회'라 할 정도로 다양한 종교들이 생겨나면서 서로간의 갈등과 불화로 인해 사회불안요소를 가중시키고 있다.

폐쇄적 종교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화합과 공존을 위해 세계 다종교국가 현황과 종교갈등사태를 점검하고 종교학자 및 각 종교지도자들에게 해결방안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강준오/교회연합신문 발행인

1. 화합을 저해할 정도로 이르렀다고 보지 않는다. 다종교사회인 우리 사회만큼 종교적 갈등이 없는 사회는 찾아보기 어렵다.

2. 불교와 기독교의 종교이기주의로 인한 경쟁심리 때문이다. 종교 내부의 교권 갈등이 타종교를 비난하는 것으로 선명성을 유지하려는 치졸한 사고도 영향을 미친다.

3. 종교간의 갈등 방지는 무슨 선언이나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진솔한 이해가 중요하다. 묵사와 스님이 자주 만나는 모임이 필요하다.

김상근/기독교교회협의회 선교교육원장

1. 화합분위기를 깨뜨릴 정도로 이르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될 소지는 곳곳에 있다. 불상에 대해 모욕적인 행위를 한 일이 있었고, 최근에는 종교가 같은 15대국회의원 총선 당선자들을 모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모두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2. 정복주의적 신앙유형이 과급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나의 신앙이 소중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 다른 종교나 세상에 대해서 세를 과시하려는 세속주의적 사고도 문제이다. 다른 종교와 이른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종교적 패권주의도 종교갈등의 큰 원인이다. 기독교의 유일신관은 반드시 그런 내용이 아니지만 갈등의 원인을 기독교에서 발생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사실이다.

3. 가르침이 바르게 되어야 한다. 타종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인류가 함께 지향해야 할 공동선 추구의 동반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야 교인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종교에 대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종교의 대표자가 공식으로 사과한다면 좋은 교육이 될 것이다. 종교지도자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개하며 함께 일하는 실천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 외형적인 규제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재일/불교 동산문화재단 이사장

1. 종교갈등이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찰이나 법당에 불을 지르거나 부수는 현상은 심각한 지경이다.

2. 종교집단이기주의, 타종교배타주의, 종교 본래의 목적 망각, 종교만능주의의 민연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

3. 종단 내적으로는 평화주의주의, 생명 존엄성 선언 및 신도교육의 활성화, 각 종교끼리는 사회봉사 연합 행사, 종교연합 문제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논의와 실행이 필요하다.

김재중/천도교 교령

1. 종교간의 갈등은 없지 않으나 우리 사회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저해 요인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2. 타종교를 무조건 이단으로 보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3. 대표자들의 모임을 통한 화합선언 등 매스컴에서 지도자들간의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김준철/천주교 서울대교구 선교국장

1. 일부 종교들에 의해 초래된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느낀다. 특히 상대 종교를 비난 매도하는 행위는 비합리적이다. 하지만 몇몇 종교들 간에는 서로간의 이해와 신뢰가 나날이 깊어지기에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2. 타종교에 대한 무지와 자신의 종교로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성숙되지 못한 신앙심에서 기인한다.

3. 보다 많은 종교인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 서로 만나 대화를 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각자의 종교체제와 수련방법도 나누며 사회에 대한 종교의 역할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석희/천주교 인동교구 주교

1. 그렇게 보지 않는다. 갈등이 있다 하



더라도 선의의 많은 종교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있다.

2. 어느 종교에서든 근본주의를 추구하는 소수의 종교인이 있다. 이들이 종교간의 화합을 깨뜨리고 있다.

3. 종교지도자들과 교역자들이 신도들에게 타종교에 대한 관용의 정신을 가르쳐야 한다. 대화는 타종교인을 개종시키겠다는 의도가 없어야 한다. 자기 종교의 진리와 선을 바로 파악하는 진실된 종교인에게 이런 설문 자체가 부스러울 뿐이다.

박진탁/사랑의 정기기증운동본부장

1. 심각한 상태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 해 남을 짓밟거나 하시는 등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흔히 본다. 가끔 개종자들이 과거에 자신이 섬기던 대상을 비하시키고 새로 만난 대상을 덕없이 부추긴다. 그럴 때 슬픔을 느낀다.

종교지도자에 듣는 화합방법

설문내용

1. 종교간의 갈등이 우리 사회의 화합 분위기를 저해할 정도로 이르렀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례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요.
2. 종교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3. 종교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종교간의 화합을 도모할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종교마찰방지법, 각 종교대표자들의 화합선언 등)

다.

2. '큰 나'를 보지 못하고 '작은 나'를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생각에만 집착하면 우상을 만든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미 바른 의미의 종교가 아니다. 종교갈등의 원인은 종교가 종교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3. 사랑의 정기기증운동본부는 불교의 새생명나눔실천회와 가톨릭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연합하여 남달고양과 골수기증운동을 펼치는 등 공동선을 추구하고 있다. 크리스찬아카데미 등에서 벌이는 종교간의 대화 프로그램은 좋은 예이다.

방윤석/천주교 대전교구 홍보국장

1. 사회의 화합을 해칠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본다. 개인교와 불교사이의 약간의 마찰은 있으나 아직까지는 잠재적이라고 본다.

2. 특정종교 신자들의 김명삼 대통령 만들기 등이 불교계의 반감을 샀다고 본다.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일괄징수하는데, 사찰을

들리지 않는 국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

3. 우리나라의 밤은 쓸모없는 것이 많다. 안 지키기 때문이다. 종교마찰방지법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10·27법난 같은 갈등도 타종교계에 악영향을 미쳐 서로 비난할 소지가 있다.

백남익/천주교 주교회의사무처장

1. 종교간의 갈등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의 화합 분위기를 저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2. 자신의 종교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타종교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경우, 타종교의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없이 외부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고 성급히 판단하는 태도, 집단이기주의화 현상.

3. 사랑의 실천을 위한 활동의 공동 추진, 예를 들어 북한 주민들에 식량보내기, 주왕산 산불 이재민돕기, 장애인 복지사업 등, 이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연 상태에서

최근덕/성공관장

1. 어느 정도 사회 불만의 가능성을 엿보이게 한다. 청와대의 특정종교에 대한 편애가 은밀히 종교갈등을 느끼게 하였다. 단군성조의 부정, 강한 교세의 과시는 서구의 약육강식적 자세이다. 종교가 세력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성있는 정책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특정종교가 타종교에 비하여 세력화를 과시하고 있다. 동양적 전통종교인들은 민족의식을 전제하나, 일부 개인주의를 조장하는 종교인이 있다.

3. 종교대표자들의 화합선언도 나쁘지 않으나, 그것은 형식에 머물 것이다. 따라서 공공질서를 방해하는(예:길거리 전철안, 가가호호 방문 전도) 전도활동을 방지하는 법률 성안이 필요하다. 특정종교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교육개혁안의 성직자 양성전문대학원제는 재고되어야 한다.

성태/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1. 김명삼대통령의 국군중앙교회 예배와 이에따른 불교도의 법회활동 방해, 교육개혁위원회의 성직자양성전문대학원제의 도입으로 우리 불교도는 편치 않은 심정이다.

그러나 화합을 깨뜨릴 정도의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판단한다.

2. 화합과 관용 그리고 종교의 요체인 자비정신의 발현이 인색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된다.

3. 종교본연의 모습을 되찾도록 각 종교지도자와 종도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도 북한수재민을 돕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특히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업을 종교인들이 함께 펼칠 것을 제안한다.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프란시스코 아리제 추기경은 불자들에게 보내는 경축메시지를 발표하고 사랑의 문화를 창조하기

교황청 경축메시지

폭력·증오로 분열...“서로 협력하자”

위하여 서로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프란시스코 추기경은 메시지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경축하는 불자들의 기쁨에 동참하고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며 “부처님 오신날은 다른 종교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좋은 기회”라고 축하를 보냈다.

또 “부처님 오신날은 각자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함께 성찰해보는 기회”라며 “불교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다 같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인 ‘관용’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프란시스코 추기경은 “관용은 참아주는 것으로 또는 정중한 대접 정도로 여기

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러한 체면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는 참된 화합과 공존을 위한 바람직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실제로 이 뜻을 우리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폭력과 증오로 분열된 세상에서 사랑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최근덕/성공관장

1. 어느 정도 사회 불만의 가능성을 엿보이게 한다. 청와대의 특정종교에 대한 편애가 은밀히 종교갈등을 느끼게 하였다. 단군성조의 부정, 강한 교세의 과시는 서구의 약육강식적 자세이다. 종교가 세력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성있는 정책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특정종교가 타종교에 비하여 세력화를 과시하고 있다. 동양적 전통종교인들은 민족의식을 전제하나, 일부 개인주의를 조장하는 종교인이 있다.

3. 종교대표자들의 화합선언도 나쁘지 않으나, 그것은 형식에 머물 것이다. 따라서 공공질서를 방해하는(예:길거리 전철안, 가가호호 방문 전도) 전도활동을 방지하는 법률 성안이 필요하다. 특정종교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교육개혁안의 성직자 양성전문대학원제는 재고되어야 한다.

최영길/한국이슬람교 재단이사장

1. 종교간의 갈등은 나의 욕심과 각 종교의 본분을 망각한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부처님의 자비는 나보다는 중생을 먼저 생각하고, 기독교에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한 예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2. 종교간의 갈등은 바로 종교인들이 자기 종교의 참된 진리와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채 사회 각 이해집단에 맹목하는에서 비롯되고 있다. 선하고 착한 종교인들을 이용하여 정치적 또는 물질적 목적만을 달성하려는 사회 각 이기적 집단의 노예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3. 불교는 기독교인 이슬람교인 타종교인을 초청하여 지비를 베풀고 기독교는 불교인 이슬람교인 타종교인을 초청하여 사랑을 베풀며, 이슬람교는 불교인 기독교인 타종교인을 초청하여 형제애를 나눌 수 있는 기구의 창설을 제의한다.

한상범/중앙신도회 창립준비위원장

1. 타종교에 대한 대립의식이 보인다. 또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종교간 차별로 모순구조를 만들어낸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분위기를 피

부로 느낀다.

2.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과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특정종교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 누적됨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3. 우리 정부 정책을 시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도층과 공권력을 움직이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공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에 대해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호림/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

1. 종교갈등은 최근의 일만이 아니다. 기독교가 한국 땅에 오면서 효사상과 전통문화의 가치를 흔들었다.

2. 근래의 공신자의 작태는 종교갈등의 차원을 넘어 일부 종교의 근본병폐가 표출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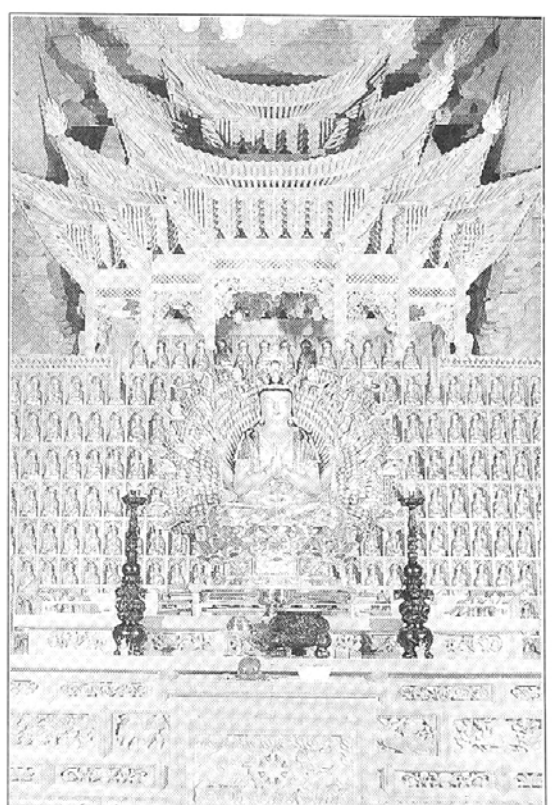
3. 선교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누리려는 자세가 고쳐져야 한다. 선교는 대상에 대한 고려가 우선인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례하다. 그러나 양보와 관용을 요구하기에는 갈등의 폭과 넓이가 너무 깊고 넓다. 불교가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가나다 순)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달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진형 합장